통권 62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12. 17 발행인/권오헌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진 장성하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여덟번째 공연이
12월 15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7천여 관객이 함께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8년동안 연인원 10만여명이 모여 양심수의 자유를 노래하였던 이 공연은
여덟 번째 공연이 준비중이던 14일 밤부터 경찰이 한양대로 통하는 모든 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아나섰으나 수
많은 관객들이 모여 들기 시작한 15일 4시 30분경 경찰들이 물러나 공연은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공연은 1부 윤도현 밴드, 이정열, 노찾사 등의 힘찬 무대로 시작하여
2부 박은옥, 한영애, 하덕규, 조동진 등 한국 대중음악의 한 뿌리를 내려온 포크계열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심수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노래를 불렀고 이어 여균동 감독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소망을 담아 만든 영화
〈외투〉가 상영되었고 4부 김종서와 패닉이 꾸미는 열띤 무대, 5부 조박과 8년째 출연한 정태춘, 그리고
가극단 금강이 만드는 순서로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꽃다지와 새하늘새땅의 희망찬 노래로 공연은 끝이 났다.
사진은 공연이 열리기전 교문앞을 막은 경찰들 앞에서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 포스터를 펼쳐 보이며
"공연은 꼭 열립니다"며 알리고 있는 회원들.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02)763-2606, 765-5282

세계인권선언과 고난받는 양심수들

12월 10일은 48년째 세계인권선언날이다. 1948.12.10 국제연합(UN)제3차총회에서 반대표없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흔히 "인류헌법의 전문"이라 불릴만큼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 성문화했고, 모든 나라의 헌법에 반영시킨 인권지침서였다. 그래서 이 총회를 "인권총회"라고도 불렀다. 물론 이 인권선언안에 있는 인권개념과 규정들이 총회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노동력포함)과 재산, 신분과 존엄을 포악한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멀리 고대노예시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겠지만, 법전으로 문서화된 것은 12세기 초 영국에서의 "대헌장"(MagnaCarta)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대헌장이 국왕에 대한 봉건제후, 기사, 종교(승려), 시민의 권리투쟁의 산물이었다면, "권리청원"(1628)"인신보호법"(1679)"권리장전"(1689)(이상 영국), 미국의 "독립선언"(1776) 프랑스 혁명때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1789)은 절대왕정과 상업자본에 대한 시민계급과 산업자본에 의한 시민혁명의 결과이기도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사회주의 사상과 20세기 혁명을 거치면서('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선언'(1917), '바이말헌법'(1919)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헌법'(1936) '베트남민주공화국 독립선언'(1946)) 인권개념이 폭넓게 보강되었으며, 이같은 인간의 끈질긴 자기해방 투지와 가치추구정신에서 이 선언은 이루어지게된 것이다.

국제연합은 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1976년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등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을 마련 많은 회원나라들이 가맹비준케 하였다. 이밖에도 국제연합이 중심이되어 채택한 인권조약들은 70여개에 이르고 수많은 선언.권고. 결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장 구속력은 없다해도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이 되어 국제조약에 버금할 압력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못박았다. '누구든지 인종, 피부색, 성, 언어등과 정치적 반대의견, 국민적 ·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밖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2조는 말한다. 이밖에도 생존, 자유 신체안전의 권리, 노예노동,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 ·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 예술 · 표현의 자유와 존엄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같은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정신은 국제연합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게 된다. 국제화 세계화의 참뜻은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지키면서도 인류 모두의 보편가치를 추구하고 지켜나가는데 더 큰 무게가 있는 것이지, 국제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세계지배질서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같은 데서는 이땅의 인권현실에 대해 우려의 뜻을 끈질기게 내세우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등 인권침해 법률들을 없애거나 고칠것과 양심수 석방을 권고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유엔'회원국이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으며 국제인권협약에도 가입했다. 최근엔 OECD 가입, 유엔안전보장이사회국으로 피선되는등 맡겨진 책임

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인권기준이나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권현실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요즘 노동측의 총파업으로 치닫게한 노동관련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새롭게 끌어드리는 등 반노동쪽으로 개악하려 하고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집시법 개악과 한동안 주춤하던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을 집권당이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세계화, 국제화, 국제지위 향상을 말하면서 안으로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정신따위는 무시한채 국민기본권을 옥죄이고 있다.

지금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가운데 인신구속을 당하고 있는 양심수문제는 그무엇보다 참담할 정도이다. 이른바 문민정권은 '문민=양심수 없음'으로 주장해 왔지만 현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11.15까지 3년 9개월간 2773명이나 잡아 가두었다. 이 숫자는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았던 5공때의 하루평균 1.61 명보다 많은 2,03명씩 날마다 잡아들인 셈이다. 그가운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44.5%인 1284명이나 되고 있다. 아직도 감옥엔 735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이들을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496명(67.5%)으로 절대 다수이고 노동자와 장기구금양심수가 각 60명(8.1%)씩이고 재야·기타 99명(13.5%), 군경 20명(2.7%)으로 조사되고 있다. 적용법규별로는 국가보안법 397명(54%)이고 노동관계법이 25명(3.4%), 집시법 410명(55%)(이 숫자는 양심수 한사람에게 국보, 집시법, 폭력 등 여러 법률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것임), 특수공무집행방해 8명(1.08%), 폭력 335명(45.5%)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불법철거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던 도시빈민들이고 폭력은 대부분이 지난 8월 통일대축전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적용시킨 것들이다. 이들은 그 죄명과는 관계없이 그 동기에서부터 행동에까지 이땅의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이들이고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진보를 주장했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보면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범주안에서 양심에 따라 공동선을 위해 일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이 해가 지나면 40년을 묶여있는 우용각 노인, 39년을 갇혀 있는 윤용기 노인을 비롯하여 30년이 넘게 0.75평 독방에 매여있는 장기구금양심수가 17명이나 되고 있다. 윤수갑, 김인수(75세) 노인을 비롯해 70세가 넘는이 만도 10명이 넘는다. 백번 양보하여 실정법을(악법이지만) 인정한다 해도 형벌이 복수가 아닌 이상 늙고 병든 이들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40년을 가둬둘 수 있단 말인가.

수은기둥이 언점아래 15°를 오르내린다. 감방의 겨울은 바로 냉장고와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장기구금양심수를 비롯하여 모든 양심수를 세계인권정신에 따라 모두 석방하라. 이 해가 가기전 언발 구르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품으로 모두 돌려 보내라!

나는 용주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

편집부

창신동 골목길은 때늦은 김장거리를 실은 트럭으로 붐볐다. 겨우살이를 준비하려는 바쁜 몸짓들, 해마다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이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곱게 늙으신 어머니 한 분이 사진기자 앞에서 쑥스러운 듯 포즈를 취하고 계셨다. 이번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 때 개봉되는 영화 〈외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캐스팅(?)되어 이미 촬영까지 마쳤다고 한다. 물론 내가 무슨 원로배우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나지막한 말소리, 부드러운 눈빛. 빨간 테두리를 두른 진회색 카디건을 단정하게 입으신 그 분은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12년째 구금되어 있는 강용주 씨의 어머니 조순선 님이시다.

"나는 뭣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 우찌 찍었나 몰라. 정신이 없었응께."

여균동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은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 말했다. 영화 〈초록물고기〉촬영에 전념하던 중에 다른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감독이 선뜻 수락한 데는 자기도 어머니 속을 무척 썩여드린 일이 생각났고, 지금 당장 해야만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란다.

영화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남기고 간 겨울 외투를 12년째 옷걸이에 걸어두고,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날만을 기다린다. 어느 날 영화배우 한 사람(윤동환 분)이 찾아와 아들의 부탁으로 하루동안 아들이 되어 주기로 한다. 두 사람이 엮어가는 안타까운 하루 낮밤. 감독은 대강 뼈대를 잡고 모든 장면은 어머니 하고픈 대로 하시라고 주문했다.

"수원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용주라는 생각이 들었어. 용주야 하고 부르고……"

어머니는 안경 속으로 짓무른 눈가를 문질렀다. 그리고 짧은 한숨. "나는 용주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

집에 와서 바지락, 홍합, 고추를 넉넉히 넣고 부추전도 부치고 김치찌개도 끓이셨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따순 밥 한그릇 지어 먹이니 참말 좋으셨단다. 아들은 어머니 무릎을 베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 안경도 맞춰 드렸다.

"마지막 장면 촬영 때는 스텝들이 많이 울었어요."

남총무가 보여준 스틸은 청회색의 어둠이 짙어가는 좁은 골목길에, 어머니가 담자락 바투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장면이었다. "막상 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대.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아들은 단 하루의 외출도 허락되지 않는 곳에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새벽차를 타고 안동으로 가신다. 가고 오는데 13시간, 일반면회 40분, 특별면회 1시간.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일 순 없고, 혼자 오면서 이일 저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

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1980년 5월 27일, 큰절을 하며 도청 앞으로 나간다는 아들을 끝내는 보내주신 분이었다.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전에도 며칠씩 안 들어와서 찾으러 다니곤 했어. 병원마다 다니면서 시체도 들춰 보고. 그날 밤엔 총소리가 나고 계엄군은 들어왔다고 하는데 소식은 없지."

아들을 찾아나선 어머니는 다음날 우연히 충장로에서 아들을 만난다. 그때의 일을 용주씨는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는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밤새도록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 아들 죽었구나 싶었다더군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도청 앞으로 나오셨어요. 죽었더라도 시체는 꼭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도청 일대를 몇 바퀴째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돌고 계셨대요. 아무리 해도 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를 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불쑥 내가 품에 안겨 왔다더군요…." 1993 5 17 편지

"….어머니! 그날 밤 저를 도청으로 보내주시다니 생각할수록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정성 때문에 또 무사할 수 있었구요. 이런 사실을 15년이나 지나서야 얘기하고 깨닫다니요…." 1995.5.25

"용주는 지가 산게 부끄럽다고 혼자서 망월동에 가서 소주 한잔 부어놓고 울다가 오고 그랬어.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많이 괴로워했지. 대학에 들어가서는 '엄마, 김밥 싸서 망월동 가자'그랬는데 수배되는 바람에 결국 못 갔지."

◘「외투」의 여균동 감독과 함께 선 조순선 어머니

82년 용주씨는 전남대 의대에 입학한다.'의사가 되더라도 돈 없다고 치료해주지 않는 의사는 되지 말아라. 입원비 없다고 병원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은 의사 아니다.'는 당부가 어머니의 입학 축하 인사였다. 아들은 훗날 또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제게 기대하지 마세요. 의대를 졸업해도 무의촌으로 갈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에 아들은 '비록 제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 노릇은 못하지만 넓은 의미에선 여전히 사회의 질병과 부조리를 고치고 개선하는 의사의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구나 싶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머니의 아홉 남매 중 용주씨는 특히 속 안썩이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다. 그는 두 살 밑의 여동생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위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빵공장에 다니게 된 일을 두고두고 가슴아파했다. 시험 보는 날은 마침 김장 담그는 날이었는데, 아침 10시쯤 되자 동생이 손을 호호 불며 들어오더란다. 식구들에게는 원서조차 안 낸 일을 숨기고 나중에 떨어졌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밖에 있을 수가 없었단다. 그리고는 밝게 웃으며 김장을 돕던 모습을 생각하며 몇 번씩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이런 가족의 희망을 저버리고 학생운동에 몸을 던진 건 아마도 타고난 정의감과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준 광주항쟁의 경험 때문이었으리라.

용주씨는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화순 탄광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화장지 행상을 하기도 한다. 민중의 고통스런 삶을 직접 겪어 보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1985년, 그는 전남대 '민주화투쟁위원장'으로 이미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1985년 9월 9일 발표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 안기부의 시나리오로 짜맞춘 조작 사건이다. 그해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5.3 인천 시위'등 고조되는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공안당국이 해외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이들과 친분이 있거나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학생들을 엮어넣어 마치 학생운동이 간첩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컴컴한 목욕탕에 들어가자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욕조에 눕혀졌다. 그는 나의 얼굴을 붙들고 그 위에 물적신 수건을 덮은 뒤 사정없이 샤워를 틀어댔다. 물먹은 수건은 곧 나의 입과 콧구멍을 막아버려서 나는 질식사 직전의 상태에서 심하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발버둥치자 수사관은 구둣발로 나의 등을 사정없이 찍어 차면서 "너같은 놈은 이러다 죽어도 별볼일 없어. 심문투쟁하다 죽어버렸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하며 협박하였다. 그들은 나의 발버둥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온몸을 꼼짝없이 묶어놓은 뒤 물을 부었다. 이러기를 몇차례 나는 온몸의 힘이 빠지고 질식할 것만 같아 북에 갔다온 사실을 고백할 테니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하게 되었다. 나는 온몸을 덜덜 떨며 그의 손에 이끌려 다시 방에 돌아와서는 가지도 않은 이북 방문 이야기를 꾸며대지 않으면 안되었다……"

〈같은 사건으로 무기 선고 받은 황대권씨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쓴 수기 중에서〉

황대권씨는 12자루의 볼펜으로 책상 높이의 파지가 쌓일 때까지 자술서를 쓰고 또 써야 했으며 나중에는 극도로 위축되고 피폐해진 정신상태에서 '모범답안'을 달달 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용주씨 역시 4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되어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폭행을 당했으며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동신고등학교 선배인 양동화씨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진술해야 했다. 그는 1심에서 사형 구형, 무기 선고를 받고 항소심까지 기각되어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93년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85년이 아니라 88년 쯤만 들어갔어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저도 그렇게 오래 살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야. 첫 면회 때 재판 받으면 곧 나가니 걱정 말라고 위로까지 했으니까."

용주씨는 12년 동안 면회온 어머니에게 늘 웃는 낯을 보여주었단다. 한달씩 단식투쟁을 할 때는 배를 움켜쥐고 오다가도 접견실에 들어서면 벌써 웃는단다.

"즈그 누나가 참말로 욕 많이 봤어. 대전에 있을5 때는 책 부쳐라, 내복 넣어라 요구가 많은 거야. 집안 형편도 여유가 없는데 뭘 그리 많이 부치라고 그러냐면 암말도 하지 말고 넣어달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십년 동안 면회 한번 온 일 없는 장기수분들 챙겨드리느라 그런 거지." 언젠가는 밭을 일구겠다며 상추와 오이 씨앗을 넣어달랬단다. 면회를 가니 손가락만한 애오이를 하나 주더란다. '꽃밭에 꽃이 없고 물이 고여 흐르지 않는다'는 대전 교도소에서 오히려 용주씨는 학생운동 시절 내재되어 있던 곱고 여린 성정을 밖으로 드러낸 것 같았다.

"….보아주는 사람 없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지천으로 피어나 산과 들을 수놓는 이름모를 들꽃처럼 소박하고 은은한 인간의 체취를 풍길 수만 있다면 감옥살이가 아무리 길고 험난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의 삶은 풍요롭고 의미있을 테니까요. 반대로 시련의 고갯길을 이겨내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켜냈더라도 자갈밭처럼 강퍅하고 메마른 마음이라면 사회정치적 평가와 무관하게 한 인간의 삶이란 입장에선 실패한 인생이고, 남도 해치고 자신도 날선 칼날에 불과할 것이구요……." 〈95.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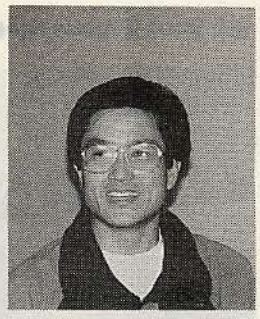
용주씨는 그깟 징역 살아봤자 2006년 9월 22일이면 만기출소한다며 어머니께는 성탄절 특사니 뭐니 아예 기대하지 마시라고 담담히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실지,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되면 어쩌나 애달아 한다.

"….내가 악착같이 싸우고 제 살 깍아 먹어가며 굶는 것은 그 때문인 탓도 있지요. 싸우고 굶는

것 외에 울엄마로 향하는 길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마저 안 하면 난 분노와 가슴앓이로 속에서부터 무너져내리고 말 테니까요……." 〈96.1.14〉

2006년이면 어머니는 일흔아홉, 꽃다운 스물셋에 잡혀들어간 아들은 마흔셋이 된다. 정녕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들이 그리워 밥대신 술로 입술을 적시고, 겨울에도 문을 열고 자야 가슴의 열기가 식는다는 어머니의 기다림이 8년이나 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잔인하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외투에 쌓인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아들을 맞으러 가셔야한다. 영화 〈외투〉가 현실이 되는 날,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이신 이균영 선생님께서 지난 11월 21일 뜻밖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바른 일을 찾아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철저했던, 정말 우리시대에 가장 소중했던 분이 아깝게, 너무도 아깝게 젊은 나이에 가셨습니다.

이균영 선생님은 1951. 12. 30 전남 광양군 광양읍 우산리에서 아버님 이응표님과 어머님 김계순님 사이에서 5남매 가운데 큰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수료(문학박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그리고 창작활동을 함께하셨습니다. 197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바람과 도시」로 응모하여 당선되었으며 1984년엔 「어두운 기억 저편에」로 제8회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작품을 쓰는 한편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학문연구와 후학지도에 열중하셨고 역사문제연구소 창립에 함께하며 연구실장, 부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신간회 연구」로 제8회 단재학술상(1990)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역사연구는 자료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답사하면서, 역사를 이루어낸 주체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고 올바른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역사의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학단협' 결성에 함께하고 '민교협' 집행부에 있으면서 암울한 군사정권시절 살인정국으로 들끓던 분노의 거리에 의연히 서 있던 일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이균영 교수님의 이같은 역사인식의 정직성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집행부에 기꺼이 참여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크고 작은 일에 꼼꼼하고 진지했으며 운영위원들과 공동의 목표와 사업이라는 형식적 유대를 넘어 맑고 티없는 순수와 진솔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두터운 우정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어느 선배가 말했던 '연약해 보였지만 강철 같았던 심지' 와 '오만해 보였지만 박꽃같은 순수가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 부지런함과 토요일이면 빠짐없이 산에 올랐던 자기 체력관리 모습도 우리의 현대사 연구를 위해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중국으로, 러시아로 세계곳곳으로 다니면서 애쓰던 모습도 볼 수 없게되었습니다. 올해 안식년을 맞아 프랑스로 연구차 떠나는 환송모임 자리에서 "내가 잠시 떠나 있어도 후원회 운영위원 일은 꼭 할것입니다." 하던 후원회에 대한 헌신과 애정도 이제 못보게 되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효성을 다했던 부모님을 떠나는 아픔,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뢰했던 부인과 소인, 두원 두 자녀와 헤어져야 했던 아픔, 그리고 수 많은 이들의 슬픔을 등지고 가신 선생님.

이제 가신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

이균영 선생님 연보

1951. 12. 30 전남 광양군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남.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수료 (문학 박사)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1977) 『바람과 도시』
제 8회 이상문학상 수상 (1984) 『어두운 기억의 저편』
제 8회 단재문학상 수상 (1994) 『신간회 연구』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부소장 역임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민교협 교권국장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광양군지』 (光陽君誌) 1983
『한국 근대 민족주의 운동사 연구』(공저) (일소각1987)
『한말 애국 계몽 운동』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 1991)
『김철수(金洙)연구』
『일제 종말기 (1937-1945) 병참기지정책』
『일제하 정치 사회 세력과 그 운동』
『신간회 연구』 (역사 비평사 1993)

주요 작품집

『바람과 도시』 『멀리있는 빛』
『어두운 기억의 저편』 『노자와 장자의 나라』

선생님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분지'에 묻히셨습니다.
유족으로 부모님과 부인 박규원님 (전 부산대 교수), 따님 소인, 아드님 두원이 있으며 누님들과 동생 이인영님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지우지 않으리 내 이름 1400번

편 집 부

김수룡 선생님

김수룡 선생님(70세)은 꼭 러시아 병사처럼 하고 우리를 마중 나와 계셨다. 깊숙이 눌러 쓴 털모자와 두꺼운 황토색 외투, 목이 긴 털신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는 흰 수염과, 알이 큰 뿔테 안경.

분당의 찬바람에 들숨 쉬기가 불편한 데도 선생님의 걸음걸이는 아주 씩씩했다. 젊은 걸음이 선생님의 보폭 큰 걸음을 따르느라 종종 걸음 쳤다. 전망좋은 선생님 방의 한 벽면엔 여러개의 수료증이 걸려 있다. 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선생님께서는 수지침 전과정을 수료 하셨고, 골격 조정도 수료하셔 국제 공인증서도 받으셨다. 92년 아내와 사별하신 후 '병과 싸워야겠다' 는 생각에서 시작하신 공부들인데, 이제는 그 공부로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계시다.

선생님의 고향은 경북 성주다. 선생님의 22대 선조인 김문기 선생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해 '사육신'이 되신 까닭에 온 가족이 성주 달산 골짜기로 피난와 사는 바람에 그 곳이 선생님의 고향이 되었다. 선생님은 1927년 일제의 수탈이 한참 심화되던 때에 태어나셨다.

아버님은 당시 빈농출신으로 일제의 탄압과 지주의 수탈에 견디다 못해 고향을 버리고 객지로 유랑하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셨고, 어머니는 공사판에서 함바를 치러 내셨다.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남을 돕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었다. 그리고 강직한 분이었다. 나는 평생에 어머니가 눈물을 지우는 것을 못 봤다. 내가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부산역에서 저 멀리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먼발치에서 손으로 눈을 씻는 것을 한번 봤을 뿐이다.'라고 선생님께서 회고하시는 어머니의 강직함과, '골처럼 패인 주름 아버님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새어 나네/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맘 단단히 묵그레이"/ 언제나 이 한마디/ 참고 견디라는/ 아버님 말씀/ 가슴에 두고두고 살아 왔다'고 노래하시는 아버님의 반골정신을 배우며 성장하신 선생님은 1942년 부산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후 친구와 함께 도일(渡日)해 오사카 관서 공업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

45년 일본 본토에 폭격이 심해지자 고국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그해 결혼을 하고 해방을 맞으셨다. 또 해방과 함께 선생님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것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해방공간은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스스로 '인민위원회'를 구성해 치안을 유지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함께 선생님의 사상적 전환에 큰 계기가 된 것은 이웃에 살던 검사의 행위였다. 일제시대에 검사를 지내던 사람이 해방후에도 검사 자리를 지키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던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벌을 주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해방 공간에서 민청활동을 하던 선생님은 46년 입당한다.

"그 때는 주로 선전물 붙이는 일을 했지요.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불을 끄면 맨 위에서 선전물을 쫙 뿌립니다, 하얀 새처럼 선전물이 아래로 날아가면, 사람들이 그 선전물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옷 속에 넣고 했습니다." 그러나 47년 선생님은 당 활동과 관련되어 구속, 다시 49년 피신하여 올라와 있던 서울에서 구속되어 서대문서에 투옥되었다.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눈만 옆으로 돌려도 불려나가 몰매를 맞고, 치도곤치는 소리가 사방마다에서 요란하게 들려오고 한번 맞았다 하면 기어 들어 올 정도의 가혹한 감옥생활이었다.

그러던 50년 6월 28일. 선생님은 서대문서에서 나온다. 선생님이 나올 당시 한 방안에 있던 15명중 생존자는 7명에 불과했다.

간수들은 밤낮없이 사람을 불러냈고, 불려 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출옥후 선생님은 농림성 토지개혁 지도원으로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다 한국전쟁때 평양으로 인민군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53년 '통일에 거름이 되고자' 남으로 내려온 선생님은 그해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15년간의 감옥생활.

그러나 15년간의 옥살이는 선생님 혼자만의 투쟁은 아니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면회를 오는 고(故) 고정순님의 옥바라지 또한 선생님의 옥내투쟁 못지 않은 지극정성의 투쟁이었다.

아내가 있었기에 선생님의 투쟁은 외롭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도 선생님은 동지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잃지 않을수 있었다 하신다.

선생님은 68년 만기출소 한다.

출소한 선생님은 제일 먼저 국가 싸이클 대표선수인 둘째 아들에게 그동안 국제 대회에 나가 받은 메달을 보여 달라고 하셨다. 면회를 왔을 때 결과가 좋았느냐고 묻자 '예, 아버지. 저 금메달 땄습니다.'라고 말했던 아들에게.

젊었던 날, 꿈에도 그리운 부인과 함께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눈물 한방울 없이 15년의 감옥생활을 견뎌온 선생님의 눈에 눈물을 맺게했다. "아버지, 사실은 저 그 때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로 선생님의 아들은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잃은 것이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낙담하실 것을 염려해 짐짓 거짓대답을 했던 것이다.

선생님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을 민주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들과 함께 매주 술을 마시며 취해 보기도 하고 때론 춤도 추러 다니고,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던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셨다.

몇 달후 선생님의 아들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가장으로서 아내의 장사에도 따라 나갔다. 선생님의 아내는 '가장 없는 가정'을 혼자 장사를 하시며 꾸려 가셨던 것이다.

"처음에는 도무지 '어서 오십시요'라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 이불밑에서 혼자 계속 연습을 했지요. 그런데도 막상 손님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 어물쩡 그냥 아내 옆에 서 있기만 했지요. 그러다 어느날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

혼자 있는데 손님이 왔단 말입니다. 하아, 그 때야 비로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옵디다."

손님의 반응. "아이구, 아저씨도 말할 줄 압니까?"

그 후 선생님은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 그 계통에서 일인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셨다. 아내가 경영할때는 작은 가게였던 것이 점점 규모가 커갔고, 장사는 전성기에 접어 들었다. 가정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갔다. 옥바라지가 끝나자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병이 깊어 가는 아내의 몸을 빼고는.

그러나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자 선생님은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된다.

'…….
그래 그래 반드시
쥐구멍에 볕들 날을
믿으며 또 믿으며
찾아 와서 반기는
아내의 얼굴

책 사오라 하면 책 사 오고
약 넣으라 하면 약 사들고
먹을 것 넣고 영치금 넣고
더 못 넣어 한이라고
겨울에는 식을세라 가슴에 품고 온
병 우유 한 병
우유도 따뜻했고
아내의 정도 따뜻했지'
('면회' 중에서)

따뜻한 우유를 품고 면회를 다니던 선생님의 부인은 점점 병이 깊어졌고, 선생님은 88년 서울로 올라와 아내의 병수발을 드는데 전념한다.

"남남끼리 만나 인연이 되어 내외간으로 오래 살다보니 정이 깊어 그런지…. 병원에서 5개월 살 수 있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6월달 넘기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달만 살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요."

92년 6월 25일. 부인의 '여보, 그만 잡시다'하는 소리에 잠이 들었는데 1시간만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일어나 보니, 아내는 회부윰한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긴 잠에 들어 버린 것이다. 영원히 깨어 날 수 없는. 선생님은 아내를 바로 눕혀 입가에 묻은 각혈을 닦아 주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셨다.

"아내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들들에게 늘 '너희 아버지는 비록 감옥에 계시지만 훌륭한 분이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기에 제가 출소한 후에도 가정을 안착시키는데 힘이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내의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선생님은 고희잔치를 하셨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생각하며 쓰신 '당신을 땅에 묻고'라는 시집을 선물하셨다. 선생님의 푸근한 마음을 다 나눠 갖기 바라시며.

'내 이름은 1400번
반평생
함께한 이름
짐짓 한자로 적어 본다
성은 천(千)가
이름은 사백(四白)이다

태어나서 불리
내 이름 잃고
자유를 잃고
얻은 것은 쇠사슬
그리고
수번 1400

…(중략)….

1400번
이제 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지만
내 마음속 깊이
그 이름이 박혀 있다

1400번으로 불리던
나를
사는 날까지
내 정신에서
내 삶에서
지우리 않으리
내 이름 1400번'
('수번 1400번' 중에서)

경찰이 검찰의 지시에 의해 합법매체와 도서들을 이념서적이라며 압수하거나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말부터 전국서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이른바 이적성 서적들을 판매금지시키고 있는데, 뚜렷한 단속기준 없이 막구잡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도서들이 이적성 표현물로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월간 '말'이 광주의 일부 서점들로부터 경찰이 '말'지 등의 판매실태를 조사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남대 앞 서점들의 경우 지난 10월말경 북부경찰서 보안과 소 속의 형사들이 찾아다니며 〈말〉 〈길〉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 등 합법적인 정기간행물과 〈인권〉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의 기관지 명단이 적힌 공문을 내보이며 은근히 책 판매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움직임은 일선 서점들의 〈말〉지를 비롯한 합법적인 잡지 판매를 위축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서점 주인은 "5, 6공 때는 이런 일이 잦았지만 문민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라며 "경찰의 방문 이후 진보적인 성격의 잡지들을 진열대에서 철수시키고 찾는 손님에게만 꺼내 팔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울산의 한 서점에서 더욱 심각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신새벽서점 주인 안 귀봉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울산 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찾아와 검찰청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면서 정기간행물 42종이 들어 있는 '금서목록'과 65개 '좌경이념도서 발간 출판사'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들 출판사는 좌경이념도서를 출판하는 곳이니 이들이 펴낸 책을 판매중지하라"고 종용했으며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출판사별로 한권씩 모두 13종의 서적을 압수해 갔습니다. 경찰은 또한 울산 양산 서점조합에 찾아가 조합 이름으로 각 서점에 〈판매금지도서 및 반품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게 했습니다.

우리는 백번 양보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한 이적표현물 실태조사와 단속이 검찰 경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하는 단속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울산지역에서 발견된 공문을 보면 창작과비평사, 한길사, 현암사, 한울, 돌베개, 사계절 등 국내 유수의 출판사는 물론 한겨레신문사까지 좌경이념서적 발간 출판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본지를 포함한 합법적인 정기간행물들이 검찰, 경찰의 사찰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분노에 앞서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특히 본지를 비롯한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이 합법적인 정기간행물을 사찰하고 서점 판매에 대해 위협을 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다소라도 비판적이면 이적 혹은 좌경의 딱지를 남발하던 과거 군사정권의 시대인식과 발상이 문민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정기간행물이나 유수한 출판사의 서적들을 좌경이념으로 분류하거나 서점주인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줘 판매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시장경제에 정면도전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은 자체의 보안목록이 어떤 기준에서 작성된 것이며 왜 오늘까지도 폐기되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해명해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공안분위기의 조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뭐든 궁금한걸 편하게 물어보세요.

운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운전은 햇수가 아니라 뛴 거리를 물어봐야지 물음의 본질이지요. 면허를 따고서도 차를 몰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글쎄 모두 합쳐 15만킬로미터 정도 뛰었나. 옅은 갈색 프레스토로 7만,빨간 르망으로 4만, 지금 아반떼로 4만 정도 되나…… 한달에 한 2천정도 뛰었던 모양인데요. 92년 겨울부터 95년까지 빨간 르망인데 그때쯤 후원회에 나타났죠,아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96년 감사패를 받으셨더군요

- 네? 아, 그건 기억나네요. 받았죠.

후원회원이 되신 건 언제죠

- 글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소식지발송을 거르지 않는다는데

- 글쎄요, 그건 실무진들이 알고 있겠죠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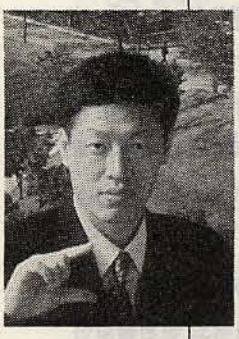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 글쎄 63년생인데 서른다섯쯤 되지 않았을까요. 별 관심이 없어서.

…….

돌의 정원. 나무, 풀, 꽃,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돌만으로 채워진 정원이다.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주는 환상과 아름다움과 위안을 깡그리 생략해 버린다. 발빠른 절망도 서투른 희망도 모두 치워버리려는 선량한 마음의 투박한 갈무리. 생의 한가운데서 생채기는 생채기인채로 들여보겠다는, 그는 돌의 정원을 품고 있었다.

"살아가는 일의 허허로운 벌판에서 버팀목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운이지요. 선생님들은 그런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생애를 통째로 바쳐 몰두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통일일꾼'으로 그러했다는 것인데……. 자기안위도 떠올랐겠지만 보다 큰 대의를 생각하신 거라고 여기고 있죠. 어떻게보면 양심을 지킨다는 행위 자체죠. 군더더기 없는. 그런데 수감생활 때문에 오히려 통일이나 민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일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계신 듯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어마어마한 건데. 양심을 선택한 것 때문에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거고. 선생님과 우리들이 함께 모두 안됐다는 생각을 해요. 속상하죠. 이런 현상을 뱉어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후원회가면 자연을 대하는 느낌이죠. 역사의 생채기로 와 닿는 거죠. 놀이공원의 바이킹을 타고 신나게 놀고 난 뒤와 야생의 산을 대하는 느낌이 같을 수는 없죠.



이희두 님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체증에 대해 할말이 많겠네요?

- 그게 아니고 주로 남들 안다닐 때 움직이다 보니까. 저녁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니까 이건 길이 막히는게 아니고 아예 차가 없죠. 별 불만 없어요. 안 겪으니까.

그래도 운전문화에 대해서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할 말이 많아요. 방어운전도 알아야 해요. 면허 따는 일을 힘들게 할 게 아니고 따고나서 운전하는 것을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는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통해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간다. 아이들에게 수학문제 푸는 법을 열중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남들 잘 때 움직이고 출퇴근 교통지옥에 시달릴 때 한참 자거나 일을 하는 생활패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면 짜여진 모양새보다는 효율을 먼저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하는 일'들 사이에서 불화(不和)를 일으키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해야만 할 일들을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굳이 희생이나 봉사의 개념까지 힘들게 올라갈 필요가 없단다. 자신이 하는 후원회 활동은 바로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경제법칙의 적용일 뿐이니 기억할 것도 못된단다. 그는 93년 시와 노래의 밤을 준비할 때 나타난 희귀한 도우미였다.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으슥한 밤에 산적처럼 등장한 그와 그가 꼬드긴 다른 한 명이 그해를 통틀어 세어볼 수 있는 도우미 전부였기 때문이다.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 뭘 도우면 됩니까? 그래서 그해 공연 포스터를 붙이느라 예의 빨간 자동차로 서울 시내를 누비는 것으로 후원회에 첫선을 보였다.

"후원회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깨야 할 꿈일지도 모르죠.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타인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불행히도 사실이며 거기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일 뿐이죠. 뭉텅그러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싫어해요.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자세도 그렇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쉬운대로 고생많이 하신 분들, 어렵고 힘든 삶을 견디신, 뭐, 그런것보다 맨 처음 결단을 내릴 때의 고뇌나 갈등을 생각해야 할 듯해요. 삶의 방향을 정할 때의 숨가쁜 시간을 숨죽이며 들여다봤으면 하는 거죠. 사는 일에 누구든 최선을 선택하죠. 누군뭐, 최악을 궁리한답니까. 다만 그 방향이 중요한거죠."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시간이 괜찮다면 소식지를 날라 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시간이 괜찮아서 날랐죠. 누구든 그럴 겁니다. 중간에 빠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억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두번 세번 당부한다. 거듭된 당부가 수상쩍어 쳐다보니, 이런, 미처 알아보지 못한 수줍음이 얼굴 한귀퉁이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이런이런…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뻣뻣하게 나왔군…… 얼렐리 꼴렐리 얼렐리 꼴렐리…… 단순명쾌한 법칙이 적용된 그의 후원회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산행이든 공연행사든 역사기행이든 부지런히 쫓아다닐 일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 사이의 친화(親和)도 궁리해 볼 만하겠다.

어느덧 12월도 한가운데로 빠져들었다. 한해동안 자신을 지탱시킨 생활의 법칙들은 행여 무사한지 돌아다 볼 일이겠다. 그리고 그것마저 별 감흥이 일지 않는다면 자갈밭에 가서 돌구경이나 하든지.

불암산 가세요?

소식지를 받아볼 때 마다 산행일자를 달력에 오려 붙여놓고 등산한번 해볼까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친구 결혼식이라던가 토요일의 무리로 인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실패만 했었다. 그날(11월24일)은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전 결심을 단단히 굳혀놓고 일요일 잠을 깨자마자 발딱 일어나 준비를 했다. 준비라야 세수하고 산행에 적당한 옷을 골라 입는 정도지만 일요일, 나의 이런 준비는 식구들을 다들 의아하게 만들 정도로 부지런한 것이었다.

"일찍 일어나니 참 기분 좋군"하며 지하철 역으로 내달아 저 꼭대기 당고개역에 도착했다. 지하철 안에서는 등산차림을 한 아저씨, 할아버지 등이 많았는데 혹시나 저 사람들도 같은 곳에 가는게 아닌가 자꾸 훔쳐보며 '나도 불암산 간다우' 하듯 고개를 빼고 봐주길 기다렸다. 당고개 역에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 내심 '민가협 산행, 엄청 번창하구만'하며 누군가 앞장을 서면 따라 가야지 했었는데 어째 좀 이상해, 이사람 저사람에게 "불암산 가세요?" 물어보니 아니라는 것이다. 내눈은 바쁘게 움직여 역내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은 차림의 몇사람에게 가서 "불암산"에 가는"민가협"임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었다. 역시 결혼철이라 그런가 보다.

소식지에서 읽었던대로 처음 나타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나이드신 분들이 날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악수를 청하셨는데 나이도 천차만별. 아마 다른 것들도 많이 다를것이 분명한데 마치 학교 동아리 모임에 온듯한 느낌이 들었다. 좀 기다려 대충 사람들이 다 모이고 출발을 했다. 산 입구에서 한 선생님(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보이시는)께서 40년이 넘도록 비전향 장기수로 계시다 얼마전 나오셨다며 무섭지 않냐고 웃음지으시며 물으셨다. 아이고 선생님 무서울게 따로 있지요.

등산길로 들어서니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금지"가 버티고 있었다. 다들, 미처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올라가신 두 세분 선생님을 모셔와야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산을 많이 다니고 또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나였다. 걷는 것도 무척 즐기는 나였는데

박혜경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서울에 온지 2년이 조금 넘었음.
현재 SIEMENS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 보기에 활달해 보이나 내성적인 성격.
방년 30세인 남자친구 있는 미혼임. 노래부르는 것 너무너무 싫어함.-유념해주세요.

얼마전 차를 가지게 되면서 움직이는 것이라곤 주차장에서 차까지 걸어가는 정도가 고작이어서 무리하는거 아닌가 걱정도 되었는데 불암산 정도쯤이야 하며 쉬엄쉬엄 걸어올랐다. 그래도 산은 산인지라 가파르기도 하고 바위를 기어야 할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참 가뿐히도 지나실땐 놀라웠다. 체력이 꼭 나이에 비례하는건 아닌가보다.

김수룡 선생님께선 올라가시며 덥다고 옷을 하나씩 벗으시는데 벗어도 벗어도 끝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있는옷은 다입고 와 옷장이 텅비었을거라 놀리는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 추위는 타실지 모르지만 그 여러벌 옷을 지고 오르시는 걸로 보아 기운은 정말 보통이 아니세요. 쉬는참에 '가수'라고 좋아하는 주희의 노래도 들어가며 바위 덩어리 정상에 다다랐다.

점심시간이 얼추되어 바람을 피해 자리를 잡아 기다리던 점심을 먹었다. 도시락 싸기가 귀찮아 샌드위치 하나를 달랑 들고 갔었는데 그것마저 누가 냉큼 빼왔아가 버리고 덕분에 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난 김밥이 좋은데 누군가 "또 김밥이야"하지 않는가 지난달에 산행에 왔더라면 그날도 김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긴데….

당고개 역에서 잠시 자기소개가 있었지만 다시한번 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라는 강요에 할 수없이 내가 아는 유일한 노래를 불러버렸다. 내려오는 길이 되자 다리가 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얼굴이 익었다고 골탕을 먹여가며 이제는 뒤풀이다!

산에서 내려와서는 입원중이시다는 김인서 선생님의 병문안을 가자고 해서 뒤풀이를 그후로 미루고 병원으로 가기로했다. 나는 6시의 약속시간 때문에 어쩌나 하다가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 창동역에서 함께 지하철을 함께 탔다가 결국은 그냥 올 수밖에 없었다.

산행의 여파는 그 다음날로 시작돼 일주일 가량을 끌었다.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바위를 기느라 팔이며 날개죽지까지 온 몸이 쑤시고 몸살까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만에 산엘 다녀왔다는 것과 미루고 있었던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시도를 했겠다, 이정도 쯤이야!

나도 포스터 한 장 줘요, 같이 서있게

박성희 (26세 · 회원)

96년 12월 15일,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여덟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렸다. 참 질박하고 애틋하고 소중한, 시간과 공간이 넓어지는 기이한 경험이었다. 솟구쳐 오르는, 단단한 벽을 뚫고 치솟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힘을 만났다. 곧장 사람의 가슴 속으로 돌이치는 날카로운 찔림이었고 겨울잠을 자려고 웅크린 정신을 뒤흔드는 샛파란 떨림이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왜 있나 한다더니, 한양대 주변에 14일 밤11시부터 전투경찰의 원천봉쇄가 이루어졌다. 공연장인 체육관에는 밤을 꼬박 지새며 공연장을 지킨 어머님들과 한양대 '시와 노래의 밤 추진위원단' 학생들이 행사진행 팀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전투경찰은 출구를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었다. 정문, 후문, 병원출입구, 심지어는 개구멍까지도. 감탄할만한 기민함이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시위도 아니고 데모는 더더구나 아니고 시와 노래를 읊는 문화행사에 이런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일곱번째 공연까지도 이런 적은 없었다. 꼼꼼하게 준비한 물품들을 챙겨실은 차량을 경찰서에 통째로 뺏기고 닫힌 문 앞에서 울적한 심정으로 서성거리기를 두시간 가까이. 지키고 서있는 경찰들은 우리가 못내 못마땅한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런 공연 왜하느냐, 도대체 양심수가 어디 있느냐,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병아리들처럼 웅송거리면서 별바라기를 하던 우리들은 구석으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사진 장성하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드디어 전투태세로 바뀌는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들을 분노로 몰아갔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게하는 그 분노는 마침내 행동을 이끌어냈다. 하릴없이 서성대던 걸음들은 어느새 한사람이 하나의 푯대가 되어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정문에서는 도우미들과 시민들이, 구정문 쪽에서는 도우미, 정태춘 님을 비롯한 출연진들, 시민들이 풍선 속에 들이찬 가뿐 숨결처럼, 팽팽한 분노를 품고서 물이되어 고여들기 시작했다. 포스터를 읽고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과 입술을 앙다문채 포스터를 들고 서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묵직한 신뢰가 오고 갔다. "공연은 반드시 열립니다." 글로 쓰고 입으로 외치고 손을 높이 들어 포스터를 흔들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공연이 아니라 전투경찰을 내세워 제멋대로 날뛰는 오만방자한 공권력과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고생 많군요, 나도 포스터 한 장 줘요. 같이 서있게." "조금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꼭 열리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시간 보내다 정각에 올께요." "공연은 꼭 해야돼요, 그거 아시죠?…"

사진 장성하

어느새 4차선도로 양편으로 양심수 공연 포스터가 물결치고 있었다.

4시 30분. 인색하게 겨우 열린 쪽문을 통해 사람들이 세차게 밀려들기 시작했다. 터진 봇물이라는 말이 바로 이러할 것이다. 누구는 그 순간 온몸의 세포가 터지는 듯해서 주저 앉아 버렸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울먹거렸다고 고백했다. 아아, 우리는 물결이었다. 어느 순간에도 홀로인 적이 없었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옥안에 갇힌 사람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뜻밖의 기회에 마음을 드러내 놓고 확인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외치고 있었다.

한달음에 공연장 앞으로 들이닥친 거센 물결은 오랜 기다림을 보상 받으려는 각오가 대단했다.

약 1만여명 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공연장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빽빽했다.

리허설할 기회마저 놓친 출연진들은 '복수'하는 심정으로 무대를 휘어 잡았다. 열기와 함성으로 체육관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윤도현, 노찾사, 이정열, 박은옥, 하덕규, 한영애, 조동진, 김종서, 패닉, 꽃다지, 새하늘새땅 등 세대와 패턴을 뛰어넘은 출연진 또한 관객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여 열창을 했다. 특히 멀리 일본에서 찾아오신 조박 선생님의 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그분은 후문에서 경찰과 대치할 때도 보통보다 큰 몸집 때문에 단연 눈에 띄인 분이었다. 흰옷에 맨발로 오른 모습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꿈꾸는 평화가 우러나오고 있었다. 참 질박하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공연 역시 평화를 달라는 것일 뿐이다. 갇힌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 옥죄이게 하는 덜익은 평화 말고 온전한 마음놓고 별바라기해도 좋을 온전한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외침일 뿐이다.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사람의 자리를 갉아먹는 흉칙한 이빨이 있으며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음이다. 여태까지도 앞으로도.

93년부터 올해까지 네번째 출연하는 가수 김종서 씨가 그랬다. "저는 이 자리에 올때는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오늘 저는 아

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연장을 찾아왔는데 다른 출연진들과 여기 모이신 관객들은 몇시간씩 정문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구요. 오늘 이 공연이 무사히,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은 모두 우리의 힘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힘입니다."라고. 그래, 올해 공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글을 쓰고 있는 나를 포함해(?) 정말 많은 우리 후원회원들이 퇴근후에 곧장 사무실로 달려와 오글오글 모여 포스터 붙이러 시내로 돌아치고, 더 많은 이들이 자기가 서있는 곳에서마다 표를 팔고, 사무실에 시간만 있으면 나와서 우체국이며 인쇄소를 왔다갔다하고…. 누군가 그랬다. 이 공연은 15일 오후 5시부터 3시간여 걸친 성대한 공연이전에 한달 내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양심수 석방을 염원하는 이들이 힘을 합한 결정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린 사람들이 함께 꽃을 피워낸 감동의 무대라고.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여균동 감독이 '단 하루라도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이라도 해먹였으면' 하는 양심수 어머니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영화 "외투"가 상영도구를 성동서 경찰들이 빼앗아가는 바람에 원래대로 멋있게 틀어지지 못하고 축소해서 겨우 상영되었다는 점이다. 언젠가 '멋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상영되기를 기대해본다.

생각해보니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한분도 보이지 않았다. 군것질꺼리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전투경찰의 완벽한 질서유지(?) 덕분에 오로지 양심수와 인권이라는 공연 본연의 뜻에 집중 할 수 있었던 정갈하기 짝이 없는 공연이었다. 하물며 암표상이야 말해 무엇하리…. 자신들의 뜻하지 않은 선행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사진 정정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느냐고 묻는다면 공연중에 울려퍼진 시인의 목소리로 답할 것이다. 〈학살-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태어나려는 생명을 죽인, 명백한 학살을 저지르고도 태연한 허울 좋은 '문민'을 향해 우리의 기억이 속살거린다. 5월을 기억하느라 붉은 꽃을 무심히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이땅에 '양심수'라는 이름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한다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덟번째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해? 혹은 여전히 하네?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대답한다. 절대 사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런일이 있었어요

11. 1. - 서울지법 합의23부 한총련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화중(건대) 학생 등 18명에게 2년 6월에서 8월까지 실형선고하고 22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11. 2. - 종묘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최로 '안기부법, 집시법 개악 저지결의대회'를 열고 종로1가 까지 거리시위.
- 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씨네21, 월간 키노, 이화여대 총학생회 공동주관 '제1회 인권영화제'가 11. 2. - 8. 까지 이대 법정대 강당에서 열림.

11. 4. - 서울지법 남부지원 한총련 사건 선고공판에서 서재준(인천대) 학생 등 16명에게 2년6월-10월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23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11. 5. - 양심수후원회 11월 운영위원회. '역사기행'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 협의.
-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통일축전참가 학생 반호진(전남대) 학생 등 16명에게 2년6월에서 1년씩을 각각 실형선고하고 21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11. 6. - 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겸 서총련 의장 박병언(연세대 총학생회장) 학생 등 서총련 중앙집행위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

11. 7. - 민가협 목요집회
- 서울지법 서부지방형사합의1부 통일축전참가 학생 정우길(동신대) 학생 등 14명에게 3년에서 1년6월까지 실형선고하고 18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11. 8. - 유가협 11차 총회 및 10주년 기념식(기독교 회관).
- 제1회 인권영화제 폐막식.
-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김동식을 만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허인회씨에게 김동식의 진술에 신뢰성이 안간다며 무죄선고.
- 대법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 상영에 시정요구키로. 이 비디오는 한총련 학생 영장기각 판사를 한총련 비호세력이라고 매도했다는 것.

11. 9. - 양심수후원회 96 회원 역사기행이 10일까지 '제천.충주지역 항일의병 유적지 및 민족유산답사'라는 주제로 다녀오다. (61호 역사기행을 찾아서 참조).

11. 10. - '민주노총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 광장에서 7만여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짐.

11. 11. -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통일축전 참가 대학생 15명에게 2년에서 1년6월까지 실형선고하고 16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11. 12. - 전남경찰청, '민족해방군' 사건 수사결과 발표. 26명 구속영장 신청. '남총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94년 홍익대 사건 이후 건설논의가 없어졌다고 반박.

11. 14. - 민가협 목요집회, 황대권.김성만 어머니, 김태룡 누님 등 사례 발표.
- 민가협 운영위원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 협의.

11. 17. - 신라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신 김인서선생님 71회 생일을 맞이하심.

11. 18. - 「후원회소식」제61호 발송.

11. 19. - 대법원,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영장발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등 형사소송규칙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11. 21. -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동덕여대 사학과 교수, 소설가)이신 이균영 교수님이 사고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
- 「말」12월호를 교도소에 발송.

11. 22. -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에 대해 구속영장 만기일을 넘겨 5일간 불법감금한 것이 드러나

다. 검찰은 기소할 때 공소장을 법원에 내지 못하여 이같은 불법구금을 하고 뒤늦게 별건 구속영장(이 또한 불법이다)을 발부받아 재구속.

11. 23. - 고 이균영 교수 영결식이 삼성의료원 영결식장에서 유족과 친지, 동덕여대 교직원들과 민교협, 작가회의 등 60여명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있었고 이어 동덕여대에서 노제를 지내고 장지에 도착, 안장.
-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주관 '안기부법, 집시법 개악 저지결의대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림.

11. 24. - 양심수후원회 11월 산행. 모두 16명이 참석, 불암산 등산을 마치고 신라한방병원으로 김인서 선생님 문병.

11. 25. - 이종 선생님께서 꼭 한달만에 퇴원.

11. 27.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민조노조운동연구소 공동주최 '총자본의 노동법 개악기도, 그 현황과 대책' 공개토론회가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림.

11. 28. - 민가협 목요집회, 송광영 열사 추모비 탈취사건 등 규탄 등. 꽃다지가 함께함.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생명권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모든 규범을 초월해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생명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림.

11. 29. - 선생님 8분에게 지원금 드림. 낙성대 만남의 집 생활지원금 드림.
- 미국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김태룡, 서경원 전의원 자녀에게 전달함.
- 혜명양로원으로 임병호선생님을 찾아뵘.
- 미결양심수 258명에게 영치금 보냄.

11. 30. -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7주년 창립기념 및 구속동지 석방 환영모임이 신촌 라이브극장 '벗'에서 열림.

이 종선생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이 종선생님께서 지난 10월 26일 급성췌장염으로 보라매 병원에 입원치료하시다가 11월26일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86세라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강한 투병의지로 거뜬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입원한 사이 간병을 해주셨던 박미선님을 비롯하여 구로청년회, 호서대 동문회, 관악청년회, 청년사랑, 남부노동자회 추진위원회, 청소년단체 '샘'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원하던 날부터 애써주시고 간병비등 큰 성원을 해 주셨던 선재회 감경호님외 여러분, 옴시롱감시롱 김호현, 최진만 회원 등 여러분, 동대문 감리교회 성원, 건대 인권위원회, 우리약국, 천주교장기수후원회, 민가협 어머님들과 한지혼, 주명순, 조명희, 박정평, 이동균, 김영승, 최 찬, 이명재, 박정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입원에서부터 퇴원하실 때까지 헌신해 주신 김선명 선생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종 선생님은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정성어린 간호에서 받은 느낌은 실로 고상한 정서 그자체 였으며 거짓없는 성의와 따뜻한 위로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무언중에 잊게해 주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범민련 사건으로 옥고를 겪으시던 전창일(남측본부 부의장), 이천재(남측본부 부의장) 두선생님이 만기출소하셨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 박용수(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 선생님께서 겨레말사전 4권 연속출간 및 '사랑 그 짓궂은 이야기' 출판축하모임이 12. 4. 서울대 동창회관에서 있었습니다.

- 지난 12월 8일, 「후원회소식」편집일꾼인 안소영 씨(안재구 선생님의 둘째 따님)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 김호현, 최진만 회원이 사무실에 핸드폰을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희설 회원이 충무로 진양꽃상가에 전화주문 꽃배달서비스 전문업체인 '금수화원'을 개업했습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전화 / 281-5973)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김법현(도봉구 쌍문동) 나옥실(영등포구 당산동) 권태숙(양산시 신기동) 이경숙(고양시 마두동) 강수은(인천시 석남3동) 정진철(성동구 옥수동) 이장춘(양천구 목2동)

● **김인서 선생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광주 '빛고을 탕제원'에 계시던 김인서 선생님께서 지난 7월 뇌졸증을 일으켜 투병하시다 10월 26일 서울 신라한방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셨는데 경과가 조금 나아져 12월 6일 퇴원하셨습니다. 입원 중 M.R.I 정밀촬영에서 그전에는 혈관이 두 번 막히고 한번 터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고 간장도 좋지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어서 회복되고 그리운 고향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빌겠습니다.

광주에서 '자연건강원'을 운영하시는 기세문 선생님께서 민속마을과 토막집, 온천과 연못이 있는 온양 외암리에 '자연건강학교 온양생활관'을 개설하셨습니다. 자연건강법 이론과 실습, 운동법, 생식 단식법, 특수민방요법 등을 통해 공해시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휴식처를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문의/ 광주:062-574-0100, 온양:0418-44-1177

● **학생양심수**

하영준(한양대) 박종호 이상철 정경훈 김호연(부산대.8.15대회 참가) 송민규(국민대졸.93년 조통위원장) 이후언(단국대.94년 부총) 윤석진(서강대졸.P.C통신) 신승우(명지대.P.C통신) 박혼동(서울농생대.경기남부조통위장) 김병규(부산대.공대 학생회장) 이재욱(연세대.노태우 항방) 박병종(조선대.녹두대장) 최이향(경북대.대경 여대협의장) 김종필(서울산업대.동아리연합회장) 박노신(전남대.남총련 투쟁국) 현석호(명지대.서부총련 의장) 박병언(연세대. 서총련 의장) 김화섭(부산대.부경총련 의장) 안준용(부산대.부경총련 조통위장) 심재령(조선대.북대학과 교류) 강병완 석우찬(연세대.시위 관련) 유종은(전남대.시위 관련) 석우찬(연세대.시위 관련) 이광호(조선대.시위 관련) 위성재(호남대.시위 관련) 김연석(서울시립대.총학 부회장) 박완희(충북대.총학 정책실장) 김중환(연세대.총학 투쟁국장) 권문수(밀양산업대.총학생회장) 박혼동(외국어대.총학생회장) 김정현(순천대.총학생회장) 김달성(대구대.총학생회장) 김수강(대구경성대.총학생회장) 곽춘희(효성여대.총학생회장) 류지봉(청주대.충북총련 중집장) 곽동주(경북대.학내시위) 공창선(광주대.학내시위) 양지연(동국대 학보사) 곽주영(동국대 편집부장) 김용백(부산대.학자추 위원장) 문숙희(덕성여대.한총련 통장관련) 허승호(혁명적사회주의자)

경기동부총련 노래패 '천리마': 국보. 10월 1일

조은경 강상구(아주대) 한선희 이경호(중앙대(안성)) 김대성(서울농대) 권영준(경기대(수원)) 강순미(한신대) 강상구(아주대)

서총련 중앙집행위원: 국보, 집시 등. 10월 28일

전민아 이주연 이성숙(덕성여대) 서다윗 오동욱 오미정(연세대졸) 김우현(경기대) 조선아(경희대) 신성필(서강대) 송민호(경희대) 박형로(단국대)

김재현 이지현(상지대.활동가조직 사건)

사학연: 국보. 11월 3일

홍희자 김상기 이청우(서울시립대)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국보. 11월 12일

임교근(광주대) 이기열 김금자(목포대) 박병우 김학기(순천대) 최재봉 조홍복 조학현 정민주 유성기 오룡 김승욱 박정훈 김현철(이상 전남대) 김영철 최정훈 문준호(이상 조선대) 윤영호 박준오 김형우 김은철 강선종 전판기 임용우 권재영(이상 호남대)

전국학생정치연합: 국보. 11월 15일

엄형식(외국어대) 이봉재(서울대) 권용희(덕성여대) 김나영(동국대)

공산주의자연합 사건: 국보. 10월 30일

김상일(연세대) 조윤미(고려대졸) 곽선영(수원대) 정택진(고려대졸) 김선태(연세대졸) 고영기(고려대) 양정희(수원대졸)

국제사회주의자 : 국보. 10월

박소연(한성대) 강형식(고려대)

● **노동자 양심수**

이재형 이승환(훗꼬꾸 노조) : 업방, 폭력. 10월 19일

정성욱 김상진(대우캐리어 노조) : 업방. 10월 4일

유덕상(한국통신 노조) : 업방,명예훼손. 10월 19일

임진용(LG 노민추) : 업방, 폭력.

조태일(두산기계 노조) : 업방, 폭력.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건 : 국보. 10월 7일

서재덕(노진추 청학위) 김광수(노진추 정책실장) 문용주(노진추 사무처장) 차준국(노진추 지부대의원) 심종섭(한라중공업) 박지순(삼양광학) 유병일(전 민정련 마창지부) 정성우(노진추 편집실장) 양준석(노진추 전 조직국장) 원대용(현대중공업) 안기호(효성금속) 송홍복(현대자동차) 배경미(노진추 전교육부장) 양응모(삼익악기해고자) 양승호(노진추 인천사무장) 김우용(기아자동차) 송호준(철해노) 김호연(전 전지협 사무처장) 강성모(노진추 대외협력장) 정광석(노진추 정책실장) 조봉호(민주노총 인천지부) 성두현(노진추 대표) 이철의(전 철도노민추의장) 이지은(노진추 총무부장) 김운철(부산철도 노민추) 이상미(노진추 실무자) 이태훈(노진추 실무자) 진귀종(노진추 청학위)

● **기타**

윤충국(청원지하수보존대책위. 먹는샘물개발반대) 신달우(청원생수공장저지.먹는샘물개발반대) : 집시. 10월 8일

진광선(오창과학단지 백지화요구시위) : 집시. 10월 8일

부산 승당마을 강제철거 : 폭력. 10월 28일

황옥춘 김선희 신갑늠 박숙희 최진학 김하조 변정순 이영자 이효순 김옥래 류재화 이희순 김단임 김문근(이상 부철연 소속) 김민철 홍승현 최 영(부산외국어대) 박정상(동명전문대)

전노련 서초지부 : 특공, 폭력.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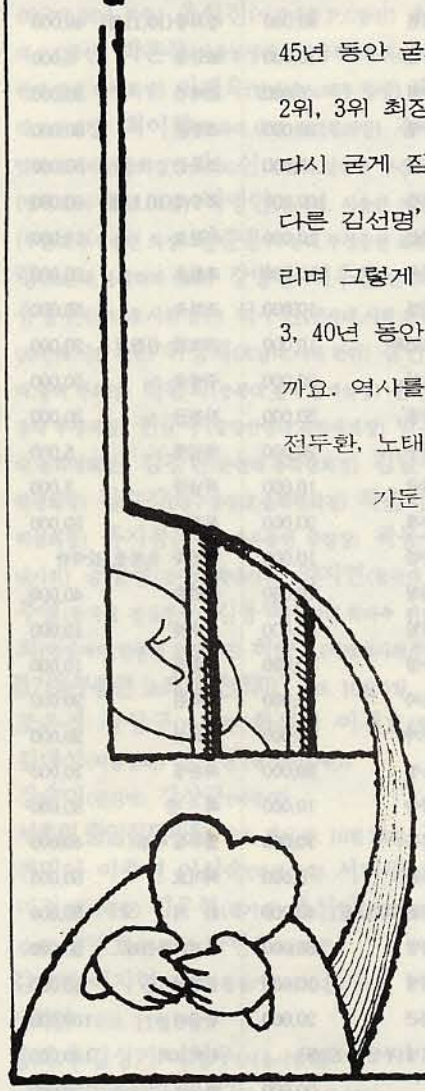
김순임 김준규 안중기 김국태 서진국 유재웅 문국환

이수영 박종대(독일유학) : 국보. 10월 5일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 : 국보.10월 6일

박미영 구로노동상담소 민애전 국보 961014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마침내 세계 1위, 2위, 3위 최장기수가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저 십오척 담장안에는 세계최장기수인 '또 다른 김선명'들과 400여 양심수가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울리며 그렇게 갇혀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음 아닐까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두환, 노태우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둔 양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역사에 의해 지금껏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헌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헌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